

발간등록번호

73-6430000-000326-10

제 ③ 권

이시종

충북
생명과
태양의 땅





이 시 종
충청북도지사
연 설 문 집

제 3 권

2012. 7. 1. ~ 2013. 6. 30.



통합청주시로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되길

2012. 7. 3. 청주시 방문 격려



건강한 충북 행복한 도민

2012. 7. 10. 행복나눔 한마당



대한민국의 투자최적지 총복으로 오세요.

2012. 7. 18. 주한일본기업인 초청 투자간담회



여러분 손에 도민건강이 달려있어요.

2012. 7. 20. 현업부서 격려 방문



한 포기라도 더 살려야

2012. 8. 16. 농작물 호우피해 현장 방문



장하대 충북 건애

2012. 8. 23. 런던올림픽 충북 출신 선수단 환영식



충북의 현안 해결 부탁드립니다.

2012. 8. 28.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 면담



이 손이 장한 손입니다.

2012. 8. 31. 피산고추축제 행사장 격려방문



힘내십시오.

2012. 8. 31. 태풍피해 농가 낙과 팔아주기 행사



어서 일어나라! 왕소나무

2012. 8. 31. 태풍피해 현장 방문



신속한 피해 복구를 바라며

2012. 9. 2. 태풍피해농가 일손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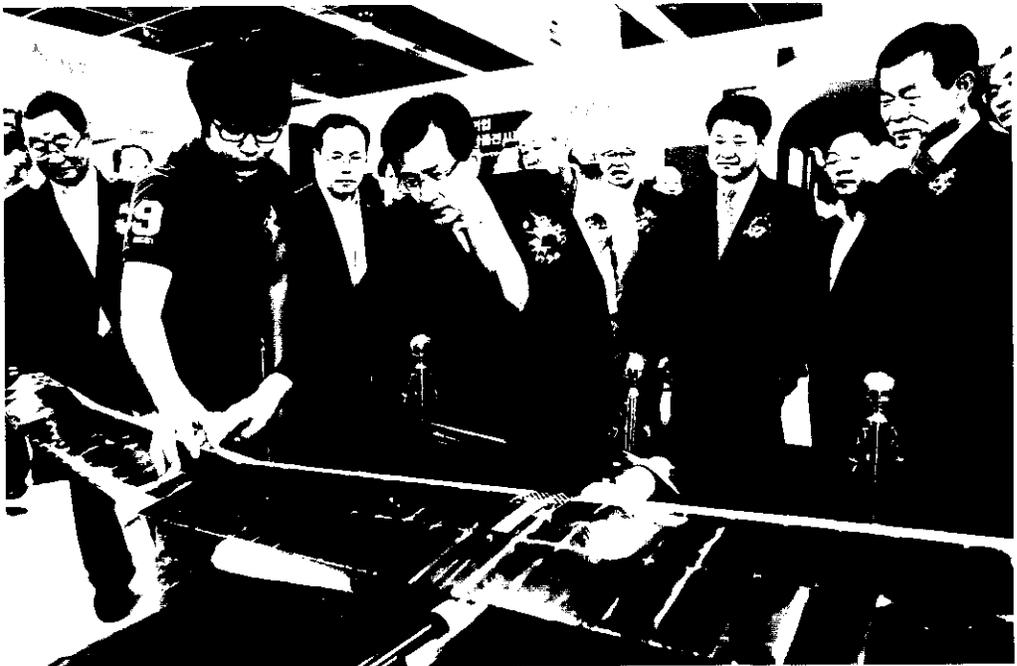
충북의 새로운 명소 충북문화관

2012. 9. 6. 충북문화관 개관 기념식



충북미래 100년 먹거리 바이오산업

2012. 9. 12. 바이오코리아2012 개막식



인류의 영원한 에너지원 태양광

2012. 9. 14. 솔라페스티벌 개최식



장하대! 우리선수단!

2012. 9. 21. 런던장애인올림픽 충북 출신 선수단 환영식



전통시장은 마음의 고향

2012. 9. 28. 추석맞이 영동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글로벌 세계!



충북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주세요.

2012. 10. 4. 전국장애인체전 충북선수단 결단식



충북을 중국인 유학생의 제2고향으로

2012. 10. 6.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2012. 10. 11. 제26차 전국시도지사 협의회 총회 16번



충북선수단 화이팅!

2012. 10. 12. 전국 체육대회 충북선수단 격려



공무원 노조 조합원과 말춤

2012. 10. 27. 직원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최고의 장애인 복지는 체육

2012. 11. 1. 제6회 충북장애인 한마음 생활체육대회



통합시지원특별법 반드시 통과돼야 2012. 11. 20. 청주 청원 통합 특별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참석



여성의 사회참여는 국가의 경쟁력 2012. 11. 21. 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창립 13주년 기념식



박람회 성공을 위해 적극 협조바랍니다. 2012. 11. 23. 화장품박람회 성공을 위한 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와의 업무협약



4-H정신으로 농촌부흥 이룩되길

2012. 11. 30. 제33회 충청북도 4-H대상 시상식



작지만 강한 충북의 중소기업

2012. 12. 3. 충북중소기업대전 개막식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모읍시다.

2012. 12. 8.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



소중한 한표!

2012. 12. 19.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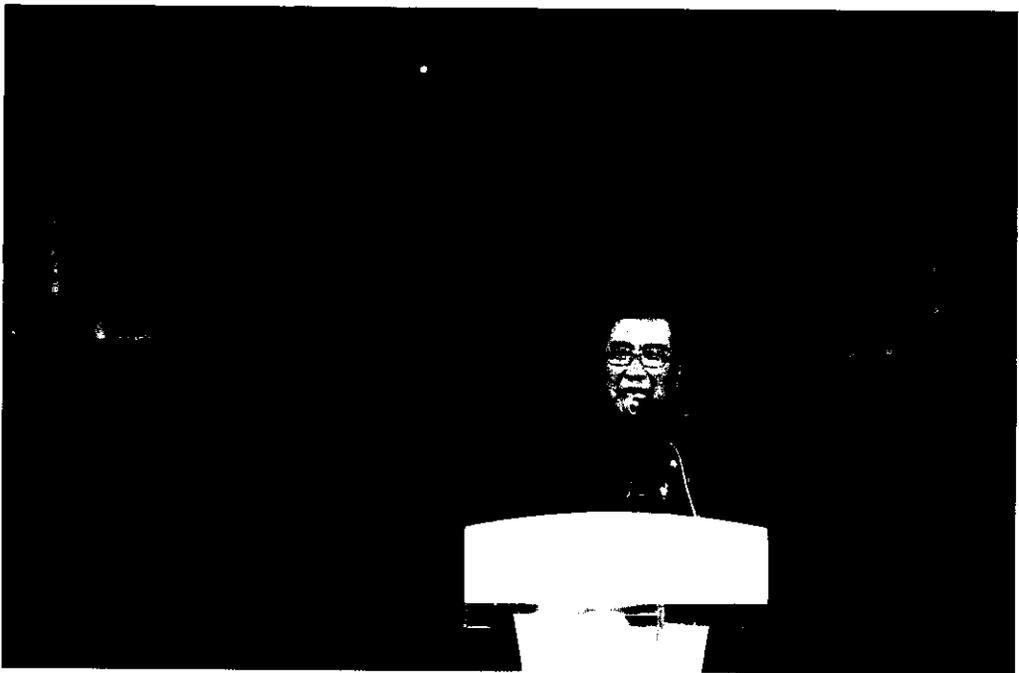
여러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2. 12. 31. 2012년 종무식



도민과 함께하는 새해 새아침

2013. 1. 1. 새해맞이 희망축제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3. 1. 1. 새해맞이 희망축제



선열의 뜻 받들어 지역발전 이루겠습니다.

2013. 1. 3. 2013년도 충혼탑 참배



한 해 농사는 알찬 영농계획부터

2013. 1. 8.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현장 방문



세계적인 오송바이오텔리 조성

2013. 1. 23. 오송 CEO포럼

이스타항공 청주 - 심양 취항

2013.01.30.

EAS



청주국제공항 취항을 축하합니다.

2013. 1. 30. 이스타항공 청주-심양 정기노선 취항식



충북미래 100년 먹을거리는 생명산업과 태양광산업 2013. 2. 20.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비전선포 2주년 기념식

2013년 제1차 전체회의

충북여성포럼 제15차 정기총회

일시 : 2013. 2. 22(금) 장소 : 충북발전연구원 주최 : 충북여성포럼 후원 : 충청북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돼야

2013. 2. 22. 충북여성포럼 정기총회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총연합회

한농연·한여농충북

일시 : 2013년 2월 22일(금) ~ 23일(토)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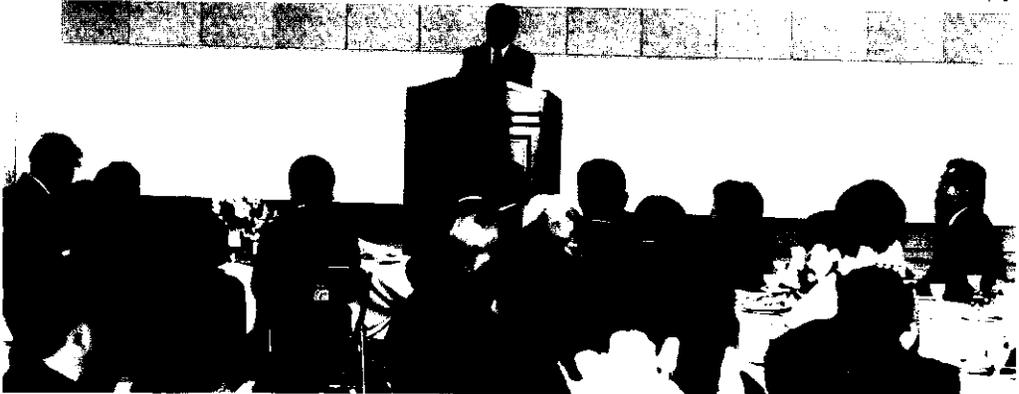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 강화

2013. 2. 22. 충청한농연·한여농 혁신리더십 교육

이시종 노지사 방문 도정설명회

2013. 2. 28. (목) 충청북도 · 청주시



청주시는 신수도권시대의 주역되길

2013. 2. 28. 청주시 방문 도정설명회



3.1 운동정신은 계승돼야

2013. 3. 1. 삼일절 기념식



함께하는 충북은 모두 함께 하는 것

2013. 3. 13. 함께하는 충북운동 출범식



청주의 또 하나의 명물 충북문화관

2013. 3. 15. 충북문화관 청주시 문화의 달 개막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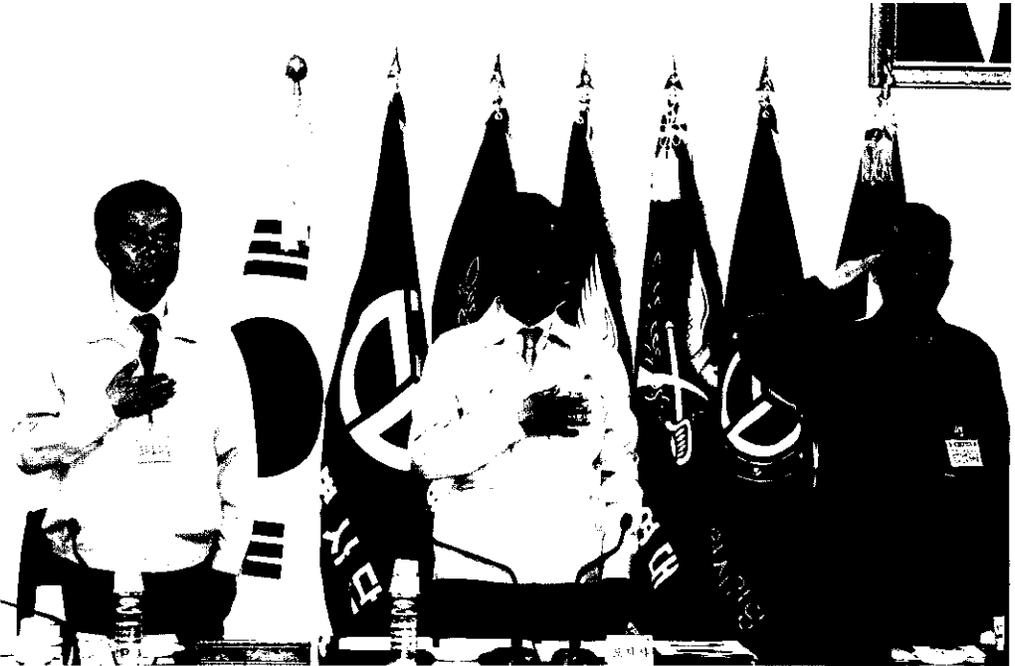
지방발전이 국가발전의 원동력

2013. 3. 22.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



우리강산 푸르게!

2013. 3. 29. 식목일 기념행사



국민행복은 철통같은 향토방위에서

2013. 4. 4. 제45주년 향토예비군의 날 기념식 및 통합방위협의회



충북의 현안사업 꼭 해결해 주세요.

2013. 4. 11. 현오석 경제부총리 면담



튼튼하고 씩씩하게

2013. 4. 16. 자연과 함께하는 기후학교 어린이 격려



고귀한 4.19 정신을 기리며 2013. 4. 19. 4.19혁명 기념식



충북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2013. 4. 23. 여성가족부장관 면담



화장품 뷰티산업 선점해야

2013. 5. 3. 오송 화장품 뷰티 세계박람회 개막식



청남대에서 윤보선 대통령을 만나다.

2013. 5. 16. 윤보선대통령 주간행사 개막식



오송의 꿈이 실현되어 갑니다.

2013. 5. 16. 이원종 전 충북도지사 접견



관람객! 1,187,365명의 박람회 현장

2013. 5. 18.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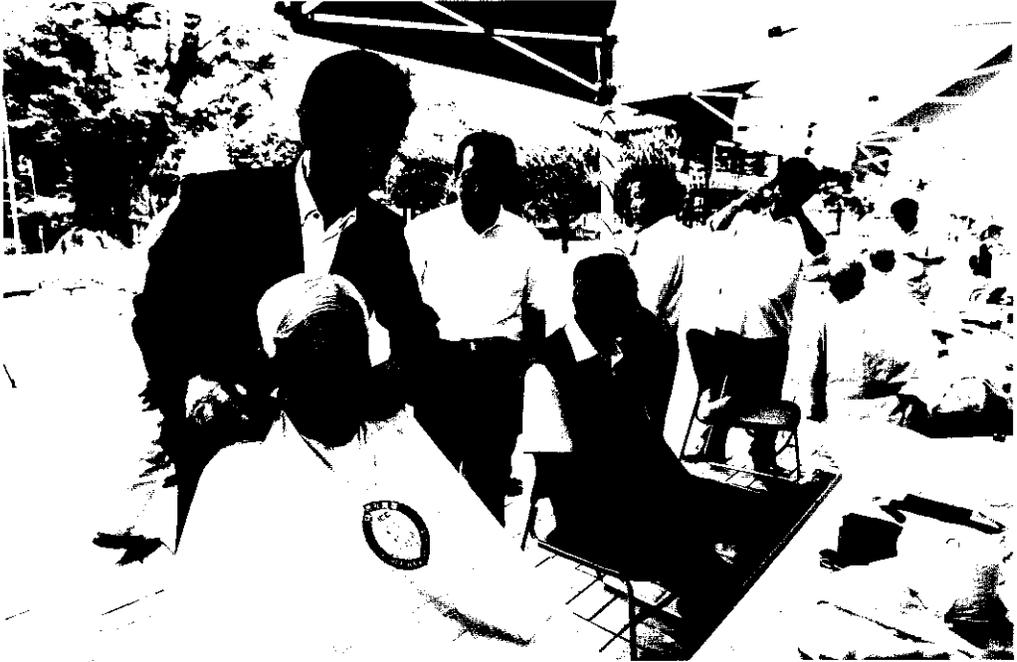
오송박람회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2013. 5. 22.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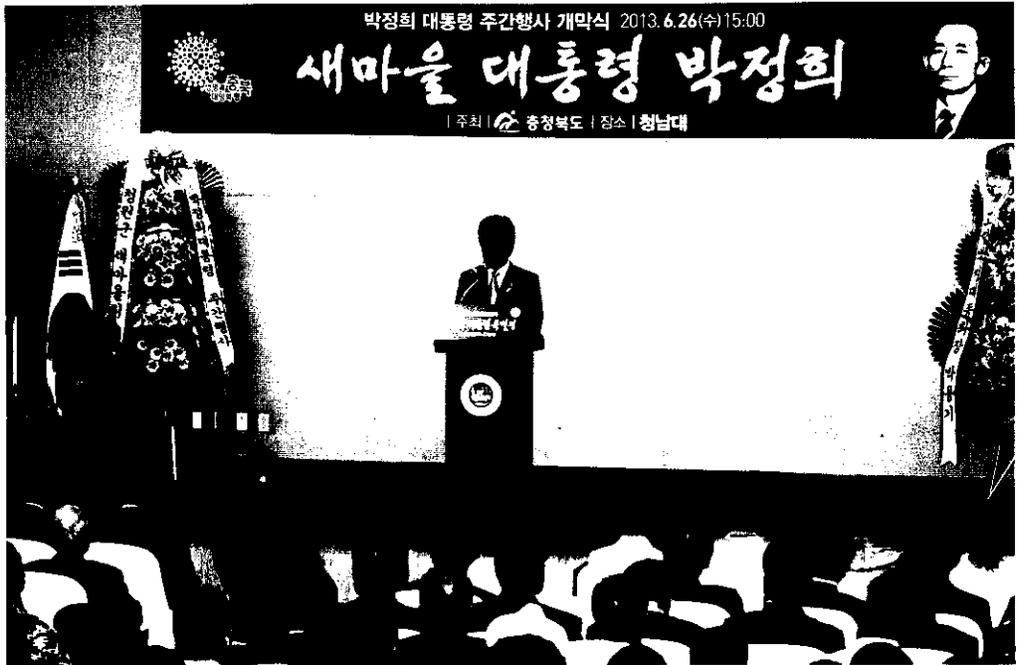
오송박람회 성원에 감사

2013. 5. 26. 2013 화장품 뷰티 세계박람회 폐막식



늘 건강하세요.

2013. 6. 25.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가위손 이발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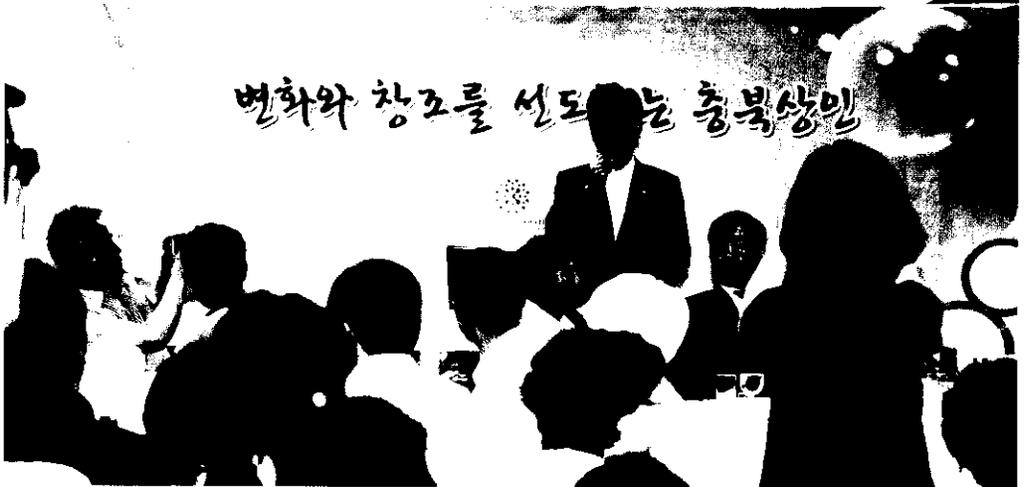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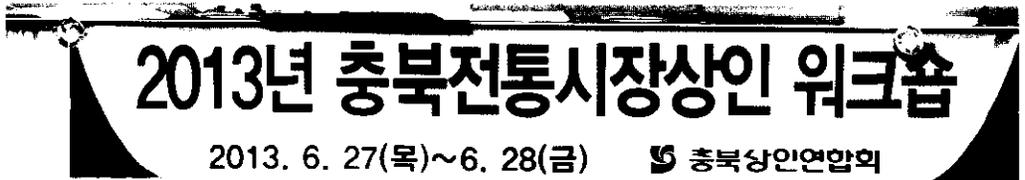


청남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다.

2013. 6. 26. 박정희 대통령 주간행사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성공기원 2013. 6. 26.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D-50 기념 준비상황 보고회



전통시장이 살아야 서민경제가 삽니다.

2013. 6. 27. 충북전통시장 상인 워크숍

차례 | 충 | 청 | 북 | 도 | 지 | 사 | 연 | 설 | 문 | 집

I. 연설문

2012. 7월

충청북도 의정 60년사 발간 기념식 축사 • 2012.07.02.	42
제17회 여성주간 기념식 기념사 • 2012.07.04.	45
충주기업도시 준공식 축사 • 2012.07.06.	48
6.25전쟁 첫 전승 기념행사 기념사 • 2012.07.07	52
주성대 태양광발전소 준공식 격려사 • 2012.07.19.	56
2012 향수옥천 농특산물축제 격려사 • 2012.07.21.	58
이승만 대통령 주간행사 인사말씀 • 2012.07.24.	61

2012. 8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연임 환영대회 환영사 • 2012.08.14.	68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증추공사 기공식 식사 • 2012.08.14.	71
제67주년 광복절 경축사 • 2012.08.15.	74
런던올림픽 참가선수단 환영식 치사 • 2012.08.23.	80
제2회 충북사이버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격려사 • 2012.08.29.	83
글로벌 ICT융합컨퍼런스 개최사 • 2012.08.30.	87

2012. 9월

충북문화관 개관식 기념사 ● 2012. 09. 06.	92
바이오코리아 2012 환영사 ● 2012. 09. 12.	96
청소년 정책 토론회 개최사 ● 2012. 09. 13.	100
2012 솔라페스티벌 개최사 ● 2012. 09. 14.	103
유기농업발전 국제학술대회 대회사 ● 2012. 09. 14.	106
제6회 전국무예대제전 대회사 ● 2012. 09. 22.	109
제4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충북선수단 해단식 인사말씀 ● 2012. 09. 27.	112

2012. 10월

제2회 중국인유학생 페스티벌 대회사 ● 2012. 10. 05.	116
제16회 노인의 날 기념식 격려사 ● 2012. 10. 05.	119
제6회 충북우수시장박람회 격려사 ● 2012. 10. 11.	122
제33회 흰지팡이의 날 격려사 ● 2012. 10. 16.	125
진천산수산업단지기공식 축사 ● 2012. 10. 17.	128
2012 국회 농림수산물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씀 ● 2012. 10. 22.	131
제6회 기업인의 날 기념식 인사말씀 ● 2012. 10. 23.	138
제3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선수단 해단식 치사 ● 2012. 10. 23.	141
제51회 충북도민체육대회 대회사 ● 2012. 10. 25.	144
중원대학교 스포츠팀 창단 축사 ● 2012. 10. 30.	147

2012. 11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6회 충북 장애인한마음 생활체육대회 대회사 ● 2012. 11. 01.	152
제93회 전국체전 충북선수단 해단식 식사 ● 2012. 11. 05.	155
항공MRO산업발전 국제심포지엄 환영사 ● 2012. 11. 08.	158
여성경제인협의회 충북지회 창립 13주년 기념식 축사 ● 2012. 11. 21.	162
법무연수원 착공식 환영사 ● 2012. 11. 26.	165
제33회 충청북도 4-H 대상 시상식 격려사 ● 2012. 11. 30.	168

2012. 12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충청북도 자원봉사자대회 격려사 ● 2012. 12. 10.	172
충북장애인체육상 시상식 치사 ● 2012. 12. 11.	176
충청북도새마을지도자대회 축사 ● 2012. 12. 21.	178
제12회 충청북도 도민대상 시상식 식사 ● 2012. 12. 24.	181
충주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준공식 축사 ● 2012. 12. 26.	185
2012년도 송년사 ● 2012. 12. 31.	189

2013. 1월

2013년도 신년사 ● 2013.01.01.	202
2013년 신년인사회 인사말씀 ● 2013.01.03.	215
2012 충북체육상 시상 및 2013 신년회 인사말씀 ● 2013.01.07.	219
9988 행복나눔미 사례발표 보고회 격려사 ● 2013.01.16.	223
이스타항공 심양 정기노선 취항식 축하 ● 2013.01.30.	226

2013. 2월

2012학년도 충북도립대학 학위수여식 치사 ● 2013.02.14.	232
대학적십자 지도교수전국협의회 총회 축하 ● 2013.02.14.	236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비전선포 2주년 기념사 ● 2013.02.20.	239
2013 농업기계 순회수리서비스 발대식 격려사 ● 2013.02.27.	249

2013. 3월

제94주년 3.1절 기념사 ● 2013.03.01.	254
임산물생산자연합회 창립총회 격려사 ● 2013.03.07.	260
옥천소방서 개청식 격려사 ● 2013.03.12.	264
함께하는 충북 운동 출범식 기념사 ● 2013.03.13.	268
제2기 충청북도 지정예술단 출범식 축하 ● 2013.03.28.	276
자활연수원 기공식 환영사 ● 2013.03.31.	279

2013. 4월

제33회 재천시민의 날 축사 • 2013.04.01.	284
제41회 보건의 날 기념식 및 치매·중풍 걱정없는 충북 결의대회 • 2013.04.05.	287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기공식 축사 • 2013.04.08.	291
2013 충청북도 기능경기대회 대회사 • 2013.04.10.	294
오송119안전센터 개청식 격려사 • 2013.04.11.	297
제8회 충청북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격려사 • 2013.04.12.	300
진천현대모비스 숲 조성 기념식 축사 • 2013.04.12.	303
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 창립 2주년 기념식 축사 • 2013.04.16.	305
제53주년 4.19혁명 기념일 기념사 • 2013.04.19.	308
청남대 개방 10주년 기념행사 기념사 • 2013.04.20.	311
제3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축사 • 2013.04.22.	314
제11회 충청북도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격려사 • 2013.04.25.	317
제3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축사 • 2013.04.26.	321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 인사말씀 • 2013.04.26.	324

2013. 5월

2013 근로자의 날 기념식 축하 ● 2013.05.01.	328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개회사 ● 2013.05.03.	331
2013 충청북도 중소기업인대회 축하 ● 2013.05.14.	336
민족통일협의회 창설 제32주년 기념 전국대회 축하 ● 2013.05.15.	338
제1차 충북여성CEO포럼 축하 ● 2013.05.21.	341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폐회사 ● 2013.05.26.	345
2013년 충북장애인기능경기대회 대회사 ● 2013.05.29.	351

2013. 6월

제3회 의병의 날 기념식 추모사 ● 2013.06.01.	356
제58회 현충일 추념사 ● 2013.06.06.	359
제42회 전국소년체전 해단식 격려사 ● 2013.06.07.	362
제52회 도민체전 대회사 ● 2013.06.13.	365
6.25전쟁 제63주년 기념식 기념사 ● 2013.06.25.	369
박정희 대통령 주간행사 개막식 인사말씀 ● 2013.06.26.	374

Ⅱ. 기자회견문

민선5기 후반기를 시작하며 도민께 드리는 말씀 ● 2012.07.01.	380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유치확정 기자회견문 ● 2012.07.10.	390
통합시 명칭 공모에 따른 기자회견문 ● 2012.08.08.	392
충북경제자유구역 심의 지연에 따른 기자브리핑 ● 2012.09.04.	394

충북경제자유구역 계획변경 관련 기자브리핑 ● 2012.09.21.	397
충북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관련 기자브리핑 ● 2012.09.25.	400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기자브리핑 ● 2013.02.04.	404
화장품뷰티산업육성계획 기자브리핑 ● 2013.05.23.	411

Ⅲ. 의회연설문

2012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2012.07.02.	416
2013년도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 2012.11.12.	426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2013.01.22.	443
2013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시정연설 ● 2013.03.05.	455

Ⅳ. 훈시말씀

2012년 7월 직원조회 훈시 ● 2012.07.02.	468
2012년 9월 직원조회 훈시 ● 2012.09.03.	474
2012년 10월 직원조회 훈시 ● 2012.10.02.	481
2012년 12월 직원조회 훈시 ● 2012.12.03.	488
2013년 3월 직원조회 훈시 ● 2013.03.04.	495
2013년 4월 직원조회 훈시 ● 2013.04.01.	503
2013년 5월 직원조회 훈시 ● 2013.05.01.	510
2013년 6월 직원조회 훈시 ● 2013.06.03.	515

V. 축하메시지

대전교통방송 개국 13주년 축하메시지 • 2012.07.13.	524
제4회 세계택견대회 축하영상 메시지 • 2012.08.23.	526
제45회 난계국악축제 축하영상 메시지 • 2012.09.25.	528
중추가절 • 2012.09.28.	530
2012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축하메시지 • 2012.10.17.	532
제67주년 경찰의 날 축하메시지 • 2012.10.21.	534
희망2013 나눔캠페인 출범식 메시지 • 2012.11.30.	535
2012 송년메시지 • 2012.12.31.	538
2013 새해맞이 희망축제 신년메시지 • 2013.01.01.	540
2013 신년메시지 • 2013.01.01.	542
중국 호북성 공민 새해 축하메시지 • 2013.02.10.	544
근하신년 • 2013.02.08.	546
제7회 부부의 날 부부공무원 축하메시지 • 2013.05.21.	548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성공개최 감사메시지 • 2013.05.27.	550

VI. 서한문

충북체육고 000 학생에게 • 2012.07.16.	554
억석스님 귀하 • 2012.08.21.	556
충북도립대학 000 학생에게 • 2012.08.21.	557
존경하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님 귀하 • 2012.10.05.	559
지역언론사에 대한 협조서한 • 2013.01.01.	561
존경하는 박근혜 당선인께 • 2013.01.29.	563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성공개최 감사 서한 • 2013.05.27.	565

페이스북



▶ 2012. 7. 6. 충북사회적기업페스티벌 기념식(충주문화산업)

충청북도 의정 60년사 발간 기념식 축사

제17회 여성주간 기념식 기념사

충주기업도시 준공식 축사

6.25전쟁 첫 전승 기념행사 기념사

주성대 태양광발전소 준공식 격려사

2012 향수육천 농특산물축제 격려사

이승만 대통령 주간행사 인사말씀

2012. 7. 2. 충청북도 의정 60년사 발간 기념식 축사

충북도의회 60년의 역사는 충북발전의 역사

충청북도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60년 환갑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도의회 개원 60주년을 맞아 '충북도의정 60년사'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년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정상을 구현해 주신 김형근 의장님을 비롯한 35분의 훌륭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7대 한현구 의장님, 9대 차주원 의장님, 11대 김준석 의장님, 12대 김진호 의장님, 13대 유주열 의장님, 18대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내빈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충북도의회 60년의 역사는 충북발전의 역사입니다.

1952년 5월 제1대 도의원 28명으로 출발하여 제9대까지 305분의

훌륭하신 의원님들께서 도민의 대변자로서 자랑스런 충북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충북이 중부권시대, 신수도권시대의 중심으로 새로운 중흥의 시대를 맞게 된 것도 305분의 의원님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대 의원님들과 함께한 지난 2년 동안의 충북도정은 역사에 길이 남을 대규모 사업들이 참으로 많았던 기간이었습니다.

충북도도는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세종시, KTX오송역, 청주국제공항, 침북단지, 과학벨트, 바이오밸리, 솔라밸리,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충북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착실히 준비해 온 2년이었습니다.

특히 9대 의원님들은 전국 최초의 무상급식 실현, 세종시와 과학벨트 사수투쟁, 청주·청원 통합 추진 등 충북의 단합된 힘이 필요할 때 도민의 대변자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7일 청원·청주 대통합시의 탄생에도 만장일치 찬성 의결과 함께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충북도는 청원·청주 통합시가 신수도권시대의 중심도시로 성장기반을 더욱 확충해 나가면서, 도내 비청주권 지역의 동반성장에도

더욱 힘써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온 충북도의회 60주년과 '충북도의회정 6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도의회의 향후 100년 발전과 존경하는 전·현직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7. 4. 제17회 여성주간 기념식 기념사

여성지도자들이 신수도권 시대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올해로 열 일곱 번째 여성주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 충북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오신 모든 여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여성계 발전과 권익신장을 위해 애써 오신 각계 여성지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의 주인공이신 전해정 여성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도·시·군 여성단체 회장님과 회원여러분, 자리를 빛내 주신 김형근 도의회 의장님과 최미애·정지숙·장병학·박상필 도의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공로로 오늘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성지도자 여러분!

민선5기 충북도정의 전반기는 지난 6월 27일 청원·청주 통합 결정

으로 희망차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충북도정은 도민이 도지사가 되어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세종시 원안 확정과 과학벨트 유치,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천안~청주공항간 전철, 북청주역 신설, 전국 최초 무상급식 실시, 충주의료원 신축, 신발전지역 지정 등 십수년간 묵어왔던 충북의 현안사업들을 대부분 해결하였거나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습니다.

그 결과 충북의 인구가 160만 충북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으며, 수출 41개월 연속흑자의 기조 속에 GRDP 증가율 전국 2위, 산업단지 수출 증가율 전국 2위, 취업자수 증가율 전국 3위를 달성하는 등 괄목할 만한 경제성적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민선5기 후반기 충북도정은 우리의 목표인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더욱 확실하게 다져, 2014년 7월 출범하는 청원·청주 통합시와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으로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충북이 신수도권시대의 중심으로 도약해 나가는 역사적 흐름에 이 자리에 계신 여성지도자 여러분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여성지도자 여러분!

지난 2년 충북도의 여성정책도 많은 발전을 거두었다고 평가합니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여성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여성 취업지원 종합시스템을 운영하여 금년 6월말 현재로 만여명(9,484명)의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여성일자리사업이 정부평가에서 전국 1위를 하는 등 취업기반이 취약한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 여성장애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충북도의 여성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충북도 여성정책 전담 조직인 여성정책관실 신설에 집약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충북도는 여성정책관실 산하에 성평등정책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여성이 주인이 되는 충북, 그래서 도민 모두가 하나되는 「함께하는 충북」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뜻 깊은 여성주간 행사가 여성의 권익신장과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기여함은 물론 여성계의 발전과 화합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뜻 깊은 여성주간을 축하드리며 여성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7. 6. 충주기업도시 준공식 축사

기업도시는 국토 균형발전의 3대 프로젝트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오늘, 21만 충주시민의 열정과 땀방울이 녹아있는 충주기업도시가 이처럼 성공적인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을 160만 충북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처럼 멋진 기업도시를 만들어 주신 충주시민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먼저 바쁘신 국정에도 불구하고 준공식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김황식 국무총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한만희 국토해양부 제1차관님과 이종배 시장님, 윤진식 국회의원님, 그리고 소기석 충주기업도시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지난 2005년 당시 충주시민 모두는 한창희 충주시장님과 정종수 사회단체협의회장님을 중심으로 뚝뚝 뭉쳐 충주에 기업도시를 유치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당시 밤잠 안자고 사업계획을 세워 중앙부처에 문이 닳도록 찾아가 충주기업도시를 유치하신 충주시청 공무원들과 충주시민 여러분의 눈물겨운 노고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애타게 고생하던 모습들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가장 모범적으로 기업도시를 준공시켜 주신 충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국토해양부 한만희 차관님과 김호복 시장님, 우건도 시장님 그리고 이종배 시장님과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우리 충북은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해 온 국토균형발전의 3대 프로젝트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모두 유치한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런 균형발전 정책들이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하여 최근 충북에는 많은 기업이 들어오고 인구가 늘어나 160만 도민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강원도 보다 적던 충북의 인구가 이제는

강원도를 3만 명이나 추월하였습니다.

이처럼 충북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인구가 증가하는 데는 바로 충주기업도시가 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충주기업도시는 이미 완성한 중원산업단지, 충주첨단산업단지과 앞으로 조성할 신산업단지와 함께 충북 북부권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춧돌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충북도는 이미 개통한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이어 제천에서 충주를 거쳐 옥천·영동까지 관통하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시작했고, 중부내륙전철 복선화 사업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들의 생명수인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 공급 사업을 위해 정부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주기업도시는 인근 음성·진천·괴산·제천·단양과 함께 충북 북부권 경제 100년 변영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충주기업도시 준공을 축하드리며, 특히 내년에 개최되는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귀한 걸음 해주신 김황식 국무총리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

을 드리며 내외귀빈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함께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2. 7. 7. 6.25전쟁 첫 전승 기념행사 기념사

동락전투의 호국정신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만드는 원동력

먼저, 조국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신명을 바치신 호국영령들의 영전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오늘, 우리는 6.25 전쟁의 첫 전승지인 동락초등학교 교정에서 62년 전 그 날의 역사적 교훈을 상기하며 굳건한 안보의지를 다지고자 합니다.

오늘의 뜻 깊은 행사를 개최하여 6.25참전 유공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앞장서 오시는 6.25참전유공자회 염병두 충북지부장님을 비롯한 6.25참전용사와 가족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랑스런 동락전승 참전유공자이신 신용관 장군님과 故 김재옥 여사님의 아드님이신 이훈 사장님, 故 김상홍 5중대장님의 아드님이신 김병한 교장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행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이기용 교육감님, 이종배 충주시장님, 박종진 37사단장님, 허부성 충주보훈지청장님, 노무식 6.25참전유공자회중앙회 부회장님, 각급 보훈단체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6.25참전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6.25 전쟁 최초, 최대의 승리인 동락리 전투가 오늘의 번영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충북도에서는 6.25선열들의 호국보훈정신에 보답하기 위하여 이 곳 동락전승지를 충북의 대표적인 안보체험의 장으로 가꿔나가고자 국가보훈처와 협의를 끝냈습니다. 또한 충북 괴산에 중부권 국립묘지인 호국원을 설립하여 호국안보정신을 거양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보훈가족 여러분!

최근 우리 충북에는 충북미래를 밝게 비추는 대단위 사업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과학벨트, 혁신도시, 기업도시, 첨복단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천안~청주공항간 전철, 충주댐 공업용수도 공급, 신발전구역 지정 등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유치되어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민선5기가 시작된 이후 지난 2년간 인구가 3만8천명이나 증가하여 160만 충북도민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7월2일 역사적인 세종시 출범과 함께 국가발전의 중심축이 수도권에서 우리 충청권으로 이동함에 따라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신수도권시대가 본격 개막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7일에는 청원군민의 위대한 선택으로 청원·청주 통합이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북은 세종시·대전·충남과 함께 신수도권시대의 중심으로 도약해 나가면서 아울러 청주권과 비청주권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6.25전쟁 첫 전승지를 기념하는 오늘의 행사가 나라사랑의 정신을 되새기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써주신 염병두 지부장님을 비롯한 보훈가족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7. 19. 주성대 태양광발전소 준공식 격려사

태양광산업은 충북의 성장동력산업이자 미래 100년의 먹거리산업

오늘, 주성대 태양광발전소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을 진 오늘, 주성대 태양광발전소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성대 태양광 발전소 준공은 작년 5월에 우리 충청도와 한국중부발전간 2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협약을 실천하는 도내 첫 번째 사업입니다.

이처럼 우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의 비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주신 주성학원 박재택 이사장님과 박용석 총장님, 한국중부발전(주) 최평락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뜻 깊은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변재일 국회의원님, 정양호 지식경제부 국장님, 김광수 도의회 의장님, 한범덕 청주시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성대 태양광발전소는 1.46MW급으로 900가구 정도의 규모가 작으면 전체가 자족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주성대

학생들의 현장체험에 좋은 학습재료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그 동안 충청도에서는 충북의 우수한 태양광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이유는 태양광산업은 생명산업과 함께 우리 충북의 성장동력산업이자 미래 100년의 먹거리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정부로부터 국내 유일의 태양광산업특구를 지정받은 데 이어 태양광기업의 기술 및 제품의 사업화에 필수적인 태양광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도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충북도는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구축, 태양광특화산업단지 및 솔라그린시티 조성, 태양광시설 보급 확대 등을 통하여 아시아 최고의 솔라밸리의 꿈을 계속 키워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 등으로 태양광산업이 일시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태양광산업은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불릴 만큼 고도성장산업이자 어차피 인류가 추구해야 할 미래핵심산업임에는 분명하기에 도에서는 좀 더 큰 안목을 갖고 태양광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우리 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태양광산업 활성화 정부특별지원대책 수립 건의안’ 7개중 6개를 정부가 전격적으

로 수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까지 태양광산업에 20조를 투자, 세계 태양광시장의 15%를 점유하여 제2의 반도체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태양광산업 재도약 프로젝트라는 전향적인 정부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도의 태양광산업 육성의지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 지식경제부 정양호 기후변화 에너지자원개발국장님과 변재일 국회의 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주성대 태양광발전소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 동안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주성학원과 한국중부발전(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주성대 태양광발전소 준공을 계기로 '해를 품은 충북도',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이 더욱 앞당겨 지기를 희망합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7. 21. 2012 향수옥천 농특산물축제 격려사

‘향수30리’ 공동브랜드로 옥천군민의 부농의 꿈 실현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옥천군민들의 땀과 정성이 듬뿍 담긴 ‘2012 향수옥천 농특산물 축제’를 16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축제를 성대하게 준비해 주신 김영만 옥천군수님, 박희태 군의회 의장님과 군의원님, 포도연합회 곽찬주 회장님, 복숭아연합회 송찬두 회장님, 옥수수과 감자의 만남 축제추진위원회 조완승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축제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박덕흠 국회의원님, 김재중·황규철 도의원님, 정구복 영동군수님, 정상혁 보은군수님, 정구복 영동군수님, 한현택 대전동구청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향수옥천의 자랑스러운 무엇보다도 명품농특산물입니다.

금강상류와 대청댐의 맑은 물, 양호한 기후조건, 기름진 토양에다 옥천농민들의 열정이 어우러져 고품질 명품농특산물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옥천포도는 전국 유일의 포도연구소와 전국 최대(2위)의 시설 포도 재배면적을 자랑하며 작년·올해 연속으로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여 전국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옥천복숭아는 복숭아연구회를 중심으로 재배기술과 품종향상에 끊임 없이 노력한 결과 새로운 복숭아 주산지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옥천 옥수수와 감자는 발농사에 유리한 안내면을 중심으로 자매결연 도시와 직거래판매 활성화에 주력한 결과 새로운 수입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옥천군민의 땀의 결정체인 옥천포도, 옥천복숭아, 옥천 옥수수와 감자는 “향수30리” 공동브랜드를 달고 전국을 누비며 옥천군민께 부농의 꿈을 꼭 이루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충북도정은 민선5기 지난 2년 동안 이 곳 옥천을 중심으로 보은·영동 등 도내 남부3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도내 낙후지역 지원을 정부에 강력히 호소하여 남부3군과 괴산·증평을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받고, 이 곳 옥천에 남부출장소를 개소하였으며, 청주~옥천~영동간 심야버스를 운행과 대청호의 친환경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천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의 핵심사업인 바이오밸리 삼각벨트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의료기기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충북도는 남부3군의 대표적인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는 과학 영농특화사업과 대청호 생태관광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여 도민 골고루 잘사는 함께하는 충북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의 향수옥천 농특산물 축제가 더욱 발전하여 옥천군민께 꿈과 희망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며, 축제준비에 수고해 주신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옥천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7. 24. 이승만 대통령 주간행사 인사말씀

우리나라 대통령 문화 청남대가 바뀝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청남대에서 이승만 대통령님의 주간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 이기수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이영기 전주이씨 양녕대군파 종친회 여러분,

특히 이승만 대통령 아드님이신 이인수 박사님 내외분, 이 곳 충북도지사를 역임하신 이동호 전 내무부장관님, 손세일·박실 전 국회의원님, 제재형 전 대한언론인회장님, 김선도 기독교감리교 총감독님, 김일주 기념사업회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충북도민을 대표하여 참석하신 김광수 도의회 의장님, 박문희·정지숙·박상필·윤성옥 도의원님, 이기용 교육감님, 김영민 공사교장님, 전태식 노인회장님, 김원진 광복회장님, 변근원 충북일보 사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 이승만 대통령님의 친필휘호를 잘 받았습니다.

“국부병강(國富兵強) 영세자유(永世自由)”의 휘호에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가난과 혼돈의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시며 오늘의 번영된 자유민주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이승만 대통령님의 건국철학이 올곧이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중한 휘호 이 곳 청남대에 소중히 잘 간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님의 일대기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살아있는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은 개화기 선각자로, 독립운동가로, 건국의 아버지로, 초대 대통령으로, 공산주의로부터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분이십니다.

아울러 이승만 대통령님께서서는 재임 중 우리 충북에 많은 인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서는 괴산수력발전소 준공(1957년), 청주~제천간 충북선 개통(1959년), 충주비료공장 건설(착공 1955년, 준공 1961년) 등 도내 굵직한 지역개발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수차례 우리 충북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많은 족적을 남기신 이승만 대통령님에 대한 역사적 공과와 객관적 평가는 후세에 맡기더라도 그 분의 충북과 관련된 발자취와 충북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은 있는 그대로 되돌아

보고 기리고자 하는 뜻에서 오늘의 이승만 대통령 주간행사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는 안타깝게도 역대 대통령은 있었지만 역대 대통령문화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우리나라는 역대 대통령에 대한 불신과 비판의 풍조는 거세었지만 역대 대통령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문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 충청북도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대통령문화를 이제 청남대를 통해 바꿔 나가하고자 합니다.

역사적 공과를 떠나 단지 대통령 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원시하며 문화적 행사 조차도 갖지 못한다는 것은 후세를 위한 역사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를 청남대에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충청북도는 현직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역대 대통령은 모두 청남대에서 모시겠습니다. 이 곳 청남대를 정치적 무대를 벗어난 모든 역대 대통령을 모시는 역사문화의 산교육장으로 승화해 나가하고자 합니다.

정치적 공과를 떠나 순수 문화행사로, 그리고 충북과 관련된 역대 대통령의 업적과 일화를 중심으로 역대 대통령을 모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는 역대 대통령 9분 모두를 대상으로 매년 대통령 주간행사를 갖기로 하고, 그 첫 번째로 초대 대통령 이승만 주간

행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이 곳 청남대는 2003년 국민에 개방된 이후 9주년을 맞는 올해까지 전국에서 645만명이 관람한 중부권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성장하였습니다.

그 동안 충청도에서는 청남대의 관광명소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대통령 역사문화관을 확장하고 대통령길을 조성하였으며, 승용차 입장과 야간개방을 추진하는 등 청남대를 역사와 자연이 공존하는 대통령테마 관광명소로 조성해 왔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대통령역사교육관과 대통령길을 조성하는 한편, 대통령 동상과 기념비 건립을 추진하고, 대청호의 친환경적 이용을 위해 중앙부처에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청남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청남대는 이러한 충청도의 관광활성화 의지와 차별적인 관광 콘텐츠가 융합하여 중부권시대, 신수도권시대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의 뜻 깊은 이승만 대통령님 주간행사를 맞아 볼거리 가득한 행사장도 둘러보시고, 아름다운 청남대의 경치도 관람하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과 아름다운 청남대를 방문해 주신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 이기수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종친회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함께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2. 8. 10. 애국지사 위로방문(진한 오성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연임 환영대회 환영사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기공식 식사

제67주년 광복절 경축사

런던올림픽 참가선수단 환영식 치사

제2회 충북사이버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격려사

글로벌 ICT 융합컨퍼런스 개회사

2011. 8. 14.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연임 환영대회 환영사

세계인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으시는 위대한 지도자

존경하는 반기문 총장님! 유순택 여사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금 총장님을 환영하는 박수소리가 제가 여태껏 들었던 박수소리 중 가장 큰 소리(?)로 들렸습니다.

이러한 진심어린 박수소리가 우리 충북사람들의 총장님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깊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고향분들이 부르시면 만사 제쳐놓고 달려와 주시는 총장님의 지극한 고향사랑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1년 전 오늘 충주에서 총장님 내외분을 모시고 UN사무총장 연임을 축하하는 도민 환영행사를 가진 것이 기억납니다.

두 번씩이나 세계대통령으로 우뚝 솟아 금의환향하신 장하신 쾌거에 도민 모두가 감격해하는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동안 총장님께서서는 지구촌 곳곳을 누비시며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을 위한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국제분쟁 조정, 빈곤퇴치와 인권신장 등 지구촌의 수많은 난제들의 해결에 앞장서시며 화합과 감동의 리더십을 발휘하셨습니다.

그 결과 총장님께서서는 모든 나라 모든 세계인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으시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계가 인정하는 미래의 지도자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총장님!

저희 160만 충북도민은 총장님의 애정어린 관심으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북이 지구촌 화합과 번영을 향한 총장님의 원대한 꿈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충북과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충북발전에 대한 도민의 열정에 총장님께서서는 지극정성의 애향심으로 힘껏 응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저희 160만 충북도민은 총장님이 세계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지도자로 UN 역사상 최고의 훌륭한 사무총장으로 영원히 기록되도록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고향분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빛내주신 총장님 내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영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 8. 14.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증축공사 기공식 식사

청주의료원은 충북 공공병원 100년의 역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도민께 최상의 정신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정신병동 증축공사 기공식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동안 정신병동 증축을 위해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신 윤총 청주의료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장선배 도의원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1909년 관립자혜의원으로서 출발한 청주의료원 100년의 역사는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청주의료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충북을 대표하는 공공병원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100년의 역사를 이어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청주의료원은 MRI 등 최첨단 의료장비를 완비하고 리모델링, 그리고 말기암환자 호스피스병동 지정 등 차별적인 의료서비스 혁신을 통하여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225억원을 들여 이번 300병상 규모의 정신병동 증축이 완료되면 청주의료원은 전국에서 가장 현대화된 정신질환자 치유병원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 충북도는 건강한 도민이 건강한 충북을 만든다는 신념하에 의료서비스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도내 의료서비스의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해 이 곳 청주의료원과 지난 5월 신축 이전한 충주의료원을 도내 공공병원의 쌍두마차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중풍·치매 걱정없는 충북도를 만들고 충북대병원에 호흡기전문 질환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북도는 시군 보건소와 의료원의 의료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읍·면·동까지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구축하는 등 도민이 더욱 촘촘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도민건강과 특히 중풍·치매 걱정없는 충복을 만드는데 청주 의료원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증축 기공식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청주의료원이 도민께 사랑받는 병원으로 더욱 더 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의 행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과 윤충 원장님을 비롯한 청주의료원 임직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8. 15. 제67주년 광복절 경축사

애국선열들의 광복 정신을 받들자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독립유공자 유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제67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복의 기쁨과 의미를 도민과 함께 새롭게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조국광복을 위해 산화하신 순국선열들의 영전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또한 독립유공자의 유지를 받들어 민족정기 수호의 선봉장이신 김원진 광복회장님과 광복회원 여러분, 그리고 독립유공자 유가족을 비롯한 보훈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주 저는 충북의 독립유공자 중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오상근 애국지사님 댁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몸은 비록 연로하시지만 애국독립의 정신만큼은 지금도 독립운동하시던 당시의 모습과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독립유공자로 추서되신 故 이차문 애국지사님의 가족분들께도 따뜻한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이번 제67주년 광복절은 어느 해보다도 값진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광복절 바로 직전에 런던올림픽 한·일 축구전에서 우리가 일본선수단에 완승했고,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독도를 전격 방문하시어 영토수호 의지를 천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애국선열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광복의 빛은, 이처럼 오늘의 번영된 대한민국을 더욱 빛내고 있고,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력을 전세계에 확실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광복절을 며칠 앞두고 런던올림픽에서 펼쳐진 한·일 축구전은 온 국민들에게 조국광복의 기쁨을 되새기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한·일 축구전이 개막될 때 우리 모두는 마음속으로 광복절 노래를 불러보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근 우리 충북은 신수도권시대의 본격적인 개막과 함께 국가발전의 중심축으로 우뚝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충북 100년 미래비전인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생명산업의 보고인 바이오밸리·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기초과학의 꽃인 과학벨트, 국내 유일의 태양광산업특구인 솔라밸리,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신성장동력들이 충북으로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철도망의 중심축인 KTX오송역, 세종시와 중부권의 관문공항인 청주국제공항, 수도권을 연결하는 천안~청주공항간 전철, 충북의 대동맥인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중부내륙철도, 원주~제천간 복선전철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우리 충북을 전국 각지로 통하는 실크로드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 충북은 이제 인구 160만 도민시대를 맞이하였으며, 민선5기 2년 동안 10조 2,170억원의 투자유치와 16만 6천여개의 일자리 창출로 경제활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충북은 그 동안 도내 남부권과 북부권간, 청주권과 비청주권간이 하나가 되어 '함께하는 충북'으로 크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도내 균형발전을 촉진할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과 도청 북부출장소 및 남부출장소 개청, 청주~제천·영동간 심야버스 운행을 통하여 청주권과 비청주권간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의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과 도립대 반값수업료를 실시하여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으며,

경로당 9988 행복나누미, 치매·중풍 걱정없는 의료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노후가 건강한 충북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7일에는 이종윤 청원군수님을 비롯한 청원군민과 한범덕 청주시장님을 비롯한 청주시민들께서 함께하는 충북을 갈망한 도민의 염원을 담아 청원·청주 통합 결정이라는 충북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66년만에 다시 하나로 뭉친 청원·청주 통합시는 앞으로 인구 100만을 자랑하는 신수도권시대의 중심도시로, 중부권의 명품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충북도는 세계대통령 반기문 UN사무총장님을 배출한 고장의 위상에 걸맞는 충북 세계화 프로젝트를 실천해 나가하고자 합니다.

우선 내년에는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와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개최하고, 2014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2015년 세계유기농엑스포를 준비하여 우리 충북을 세계 속의 충북으로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충북도는 인근 대전시, 충남도, 세종시와 함께 범충청권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충청권 광역행정본부를 설치하여 신수도권 시대의 완전정착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67주년 광복절의 기쁨을 도민과 함께 경축드리며, 우리
충북이 낳은 위대한 독립운동가 이신 단재 신채호 선생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선생께서는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 애국심의 원천”이라며 역사를
통한 깨어있는 민족혼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160만 충북도민은 역사 속에서 민족의 희망과 비전을 찾고
자 했던 단재 신채호 선생의 가르침을 받들어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충북의 역사를 남겨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서민도지사 이시종은 160만 도민을 진정한 도지사로 모시며 ‘진실이 최
대의 무기다’라는 평소의 신념대로 화려하지 않게, 그러나 진실 되고 솔
직하게 애국선열들의 광복의 정신을 받들어 충북도정을 이끌겠습니다.

또한 1만2천여 충북의 공직자 모두는 온 몸을 던져 충북을 지켜주신
애국선열들의 꿈인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습
니다.

아울러 충북도는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이 당당한 충북인
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중부권 국립묘지인 국립호국원
을 조성하고, 3·1공원에 독립유공자 추념탑을 건립하는 등 보훈가족을

예우하고 보살펴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제67주년 광복절을 도민과 함께 경축드리며, 160만 도민 모두에게 희망과 축복이 넘치는 뜻 깊은 광복절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8. 23. 런던올림픽 참가선수단 환영식 치사

충북체육은 대한민국의 힘이고, 우리 충북의 힘

국가대표 선수단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올 여름 더위를 잊었습니다. 오늘 당당한 충북인의 기개를 런던 하늘에 펼치고 개선하신 자랑스러운 충북의 국가대표 선수단 여러분을 160만 도민과 함께 뜨겁게 환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선수단 여러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도의회 임현 부의장님, 체육회 원로, 가맹단체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사격에 변경수 총감독님, 차영철 코치님, 육상에 김기훈 코치님, 유도에 김은희 코치님의 훌륭한 지도와 체육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랑스런 선수들을 뒷바라지 해오신 송대남 선수의 사모님, 최영래 선수의 부모님, 임동현 선수의 어머니님, 구자철 선수의 아버지님, 황석호 선수의 부모님들을 비롯한 선수단 가족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선수단 여러분!

이번 런던올림픽은 우리 충북선수단 여러분께도 최고의 올림픽이었습니다.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총 4개의 값진 메달을 획득했고, 비록 메달을 놓쳤더라도 불굴의 투혼을 불사르며 도민께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 충북선수단의 활약은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스포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160만 도민은 올림픽 기간 내내 우리 선수여러분이 연출하는 각본없는 인간승리의 드라마를 손에 땀을 쥐며 지켜봤습니다.

이러한 감동적인 드라마로 우리 160만 도민은 가슴 뿌듯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것이 여러분이 우리 도민들께 안겨준 커다란 희망이자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이러한 역동적인 모습들이 대한민국의 힘이고, 우리 충북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선수단 여러분!

우리 충북체육이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해 문을 연 진천 국가대표훈련원이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진천 국가대표훈련원은 세계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이번 올림픽에서 사격, 양궁 등 12종목의 훈련지로 사용되어 명실상부한 국가대표선수 육성의 최적지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오는 2017년 진천 국가대표훈련원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충북

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엘리트체육의 요람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도민께 큰 기쁨과 자긍심을 선사해 준 선수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이 만들어 낸 오늘의 업적들은 앞으로 충북체육의 자랑스런 역사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선수단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큰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8. 29. 제2회 충북사이버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격려사

전자상거래는 농업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소통의 도구

존경하는 사이버농업인 여러분!

작년에 처음으로 뵙고 이번에 두 번째 만남입니다.

어제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불라벤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농업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업인들이 힘을 모아 이 어려운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태풍피해로 인한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충북농업의 미래를 밝게 해주는 사이버농업인과 함께 '제2회 충북사이버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농업·농촌의 정보화를 선도해 주시는 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 이은재 회장님과 충북사이버농업인연합회 최주순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이버농업인이 우리 농업과 농촌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고 부농으로 가는 길잡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6년간 전국 사이버 쇼핑몰에서 판매된 농수산물의 판매금액은 2005년 2천8백억원에서 2011년말 8천2백억원 수준으로 약 3배정도 증가하여 전자상거래 비중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도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자료를 보면, 전자상거래를 활용하는 농업인의 경우 단골고객 주문이 2배, 소득이 30%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농업인께서 추구하시는 전자상거래는 오늘날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소통의 도구가 되어 농업인과 도시소비자 모두가 윈윈하는 상생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이버농업인 여러분!

우리 충청의 미래비전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은 당초 산업부문에서 미래성장동력산업인 생명산업과 태양광산업을 충북의 미래 100년 먹거리로 육성하고자 하는 충북도의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은 산업부문을 넘어 농업부문에서의 비전에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캐치프레이즈가 되고 있습니다.

생명은 최근 농업의 세계적 흐름인 생명농업을 상징하고, 태양은 농업에 꼭 필요한 본질적인 요소이기에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은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충북도정은 충북농정의 목표를 「생명농업의 중심, 충북」을 실현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충북도는 친환경 고품질농산물을 육성하여 세계시장에 당당히 도전하고, 2015년 세계유기농엑스포를 개최하여 세계유기농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입니다.



▲ 태풍피해 과수능가 방문

모쪼록 오늘 이번 행사의 주제인 “생명과 태양의 농업인, 사이버 세상과 통하다“가 뜻하는 것처럼, 태양의 품은 생명농업을 꼭 실현하시고, 아울러 사이버영농인으로 부농의 꿈도 함께 이루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의 사이버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가 큰 성과를 거두시길 바라며, 사이버농업인 여러분의 가정과 농장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8. 30. 글로벌 ICT융합 컨퍼런스 개회사

정보통신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동력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에서 새로운 산업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글로벌 ICT융합 컨퍼런스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국정에도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노영민·정우택 국회의원님, 김광수 도의회 의장님, 지식경제부 정만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보통신기술 전문가 여러분!

오늘날 정보통신기술(ICT)은 혁명적인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3D TV가 이미 우리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으며 데이터 저장 공간이 무한히 확장되는 클라우드 컴퓨팅기술이 상용화 되는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 변화의 중심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UN 전자정부평가 1위,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정보통신 발전지수 1위, OECD 모바일 광대역통신망 1위의 명성을 쌓아올리며 정보통신기술의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정보통신기술로 무장한 첨단제품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8%를 차지하고, 무역 1조달러 달성에 견인차가 될 정도로 정보통신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동력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은 앞으로 기존 산업과의 융복합에 강력한 촉매제가 되어 새로운 시장창출과 함께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을 더욱 돋보이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산업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는 ICT융합산업의 미래를 전문가들과 점검해 보는 데 오늘의 컨퍼런스 개최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 충북이 미래비전으로 추진하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의 캐치프레이즈는 산업적 측면에서 ICT융합산업의 발전을 더욱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충북은 국가핵심연구지원시설과 바이오기업이 밀집하고

있는 오송생명과학단지과 첨단IT기업이 집적되어 있는 오창과학단지를 중심으로 의료건강산업 등 BIT융복합산업의 허브로 육성될 것입니다.

아울러 충북도는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IT와 SW융합산업,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산업 육성에도 적극 참여하여 충북의 산업지평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부터 이틀간에 걸쳐 개최되는 컨퍼런스가 ICT융합산업에 대한 새로운 지식의 장이 되어,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한 결실을 맺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뜻 깊은 글로벌 ICT융합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유공자

KHIDI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충청



▶ 2012. 9. 12. 바이오코리아2012 개막식

충북문화관 개관식 기념사

바이오코리아 2012 환영사

청소년 정책 토론회 개회사

2012 슬라페스티벌 개회사

유기농업발전 국제학술대회 대회사

제6회 전국무예대제전 대회사

제4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충북선수단 해단식 인사말씀

2012. 9. 6. 충북문화관 개관식 기념사

충북문화관은 함께하는 충북 도정목표를 실현하는 상징물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160만 도민과 청주시민, 그리고 문화예술인들께 아주 뜻 깊은 선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론 지난 6월 27일 청원·청주 통합을 결정해 주신 청원군민, 청주시민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충북문화관 개관을 진심으로 경축드립니다.

오늘의 축하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광수 도의회 의장님, 신경식 청주 지검검찰청 검사장님을 비롯한 많은 기관단체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충북문화관 탄생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지역의 문화예술인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청주향교와 대성동, 탑동, 수동주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충북문화관 개관 기념식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오늘의 충북문화관 개관은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하나가 탄생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 개인적으로는 도민과의 약속인 도지사 선거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다는 측면에서 충북문화관 개관은 아주 보람있는 사업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역사적 유물이자 입지여건과 편의시설이 잘 구비되었던 이곳 도지사 관사를 도민께 돌려드리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우선 도정의 긴급한 현안보고와 외국사절단을 위한 야외 의전행사 등을 위해서 이만한 공간이 없다고 반대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과거 도지사 권위와 권력의 상징이었던 도지사 관사를 도민 모두가 즐기는 문화휴식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도민 모두가 행복한 「함께하는 충북」을 건설해 나가는 서민도지사로서 당연한 책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흐뭇해 하시고, 문화예술인들이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그 때의 결정이 참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훌륭한 복합문화공간이 탄생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지혜와 노력들이 뒷받침 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조언과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충북예총, 충북문예총 등 지역의 문화예술인들과 유철웅 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장님, 주재구 충북주민자치연합회 고문님, 이강선 청주향교 총무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충북문화관이 도민 모두의 합작품이며, 함께하는 충북의 도정목표를 실현하는 상징물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충북문화관의 콘텐츠는 단아하고 소박하면서도 정감이 가며, 주위

자연환경과도 아주 잘 어우러지게 구성되었다고 봅니다.

도내 유일이며 우리 충북의 12개 시군을 대표하는 문인들의 작품공간인 문화의 집,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분들의 소통공간인 북카페, 문화예술인들의 뛰어난 작품성을 선보이게 될 숲속의 갤러리, 그리고 야외무대공간 등 훌륭한 시설물들이 아주 절묘하게 배합되었습니다.

앞으로 충북문화관은 통합 청주시민과 도민들이 삶의 여유를 즐기는 문화 사랑방으로,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예술혼을 발산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충북문화관 개관을 도민과 함께 축하드리며, 풍성한 가을의 문턱에서 충북문화관에 풍요로운 문화예술의 향기가 영원히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2. 9. 12. 바이오코리아 2012 환영사

세계적인 바이오산업 종합박람회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향한 바이오 코리아 2012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국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빛내 주신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님, 충청북도의회 김동환 부의장님, 대구침복재단 김유승 이사장님, 오송침복재단 윤여표 이사장님,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님,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경화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멀리 충북에서 참석해 주신 전태식 노인회장님, 이규택 충청일보 회장님, 손석민 서원대총장님을 비롯한 충북 기관단체 회장님 여러분, 그리고 278개 바이오기업의 대표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바이오기업인 여러분!

우리 충북은 일찍이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오송을 중심으로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한 결과 이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에서 그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특히, 20여년 전부터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산업을 꿈꿔온 오송바이오밸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 입주와 함께 대한민국 보건행정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가핵심연구시설들이 밀집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과 이러한 연구결과물의 산업화를 도모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가 유일의 생명과학단지인 오송 제1단지에는 이미 60여개의 첨단 바이오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바이오교육산업의 중심이 될 제2생명과학단지과 바이오 문화관광의 거점이 될 KTX 오송역세권 개발이 완료되면 오송바이오밸리는 그야말로 꿈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제천의 한방바이오밸리와 옥천의 의료기기산업단지, 그리고 괴산 유기농단지를 연결하여 바이오사각벨트를 집중 육성하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은 완성될 것입니다.

국내외 바이오 전문가와 기업인 여러분!

이번 바이오코리아 2012 박람회는 바이오분야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참가함으로써 세계적인 바이오산업 종합박람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바이오코리아2012 개막식

또한, 바이오산업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비즈니스 상담과 투자 상담, 공동연구협력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바이오 기업인들에게는 실질적인 성공을 지원하는 장이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행사를 통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라며,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송에 이미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 충북재단, 60여개가 넘는 바이오기업들이 입주하고, 인근 세종시에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등이 입주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내후년에는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를 오송에서 개최하는 것을 중앙부처와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 모두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드리며 환영의 인사를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2. 9. 13. 청소년 정책 토론회 개최사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

존경하는 청소년가족 여러분!

오늘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에서 바람직한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행사를 빛내 주신 김금래 여성가족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도교육청과 청소년전문가, 각급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 주제발표를 해주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근영 연구위원님, 명지대 권일남 교수님을 비롯한 패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청소년가족 여러분!

최근 청소년문제는 단순히 '사춘기의 문제', '가정 문제'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언론을 보면 학교폭력 사건,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사건, 어린이 성폭력 사건 등 우리 어른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 경종을 울리는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는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김금래 여성가족부장관님을 비롯한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도에서는 올해 도내 전 시·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전국 최초로 상담을 통한 학업중단 청소년지원사업을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건전한 수련활동과 체험 공간마련을 위해 100억원을 투입하여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을 현대식 수련시설로 재건축하고 있으며, 날로 심각해져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대책위원회도 설치·운영하는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지금보다 더욱 밝고 깨끗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가 발 벗고 나서야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토론회가 청소년

정책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정책제언, 학계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열띤 토론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청소년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미취학아동 도청 기후학교 방문

2012. 9. 14. 2012 솔라페스티벌 개최사

솔라페스티벌은 미래를 위한 충북도민의 의지의 표현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찾아주신 내방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북도민을 대표하여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우리도 태양광산업을 물심양면 지원해 주시는 지식경제부 김학도 신산업정책관님, 멀리 독일에서 오신 헬름홀츠 태양광센터 볼프강 바브라트 박사님, 코유로 장국현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시는 기업체대표 여러분, 각급 산·학·연·관 관계자 여러분, 태양광으로 밝은 미래의 꿈을 키워가고 계신 태사모 회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미래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태양광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도정 슬로건으로 내걸고 도정의 모든 역량을 바이오와 태양광에 집중하여 옴으로써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무한 청정에너지원인 태양광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충북은 그 선구자의 길을 개척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태양광 산업이 다소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4~50년 안에 화석에너지가 고갈되면 대안으로 태양광 밖에 없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전 인류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올 태양광 시대를 대비하여 미리 하나하나 주춧돌을 놓음으로써, 바이오와 함께 앞으로 10년 이내에 국내는 물론 세계가 우리 충북을 주시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충북은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태양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아시아솔라벨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고, 2020년까지 충북을 아시아 제1의 태양광산업 허브클러스터로 만들기 위한 만반의 준비도 마쳤습니다.

또한 충청북도를 해를 품은 충북도란 의미로 '해품도'로 명명하여 태양광 산업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4월에는 전국 최초로 광역형 태양광특구를 지정 받은 데 이어, 지난 5월 정부의 태양광산업 재도약 프로젝트에 우리도가 건의한 정책 대부분이 받아들여 짐으로써 태양광업계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6일에는 한화그룹과 1조 3천억원에 이르는 투자 MOU

를 체결함으로써 충북이 태양광산업의 거점지역이자 태양광산업을 선도하는 道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개최하는 솔라 페스티벌은 당장의 성과보다 10년, 20년 뒤 미래를 보고 추진하는 충북도민의 결집된 의지의 표현이자 첫 출발점입니다.

저는 이번 행사를 통해 태양광시대가 도래하고 그 근원지가 바로 충북임을 확실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페스티벌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서 펼쳐지는 태양광축제를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 9. 14. 유기농업발전 국제학술대회 대회사

유기농은 지구를 살리기 위한 소비자의 선택

오늘 유기농업 발전과 2015 과산 세계유기농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개최하는 유기농발전 국제학술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충청북도의회 김광수 의장님, 정 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발표를 해주실 ISOFAR 손상목 회장님과 독일 본대학교 울리히 쾨프케 유기농업연구소장님, 일세 라스무센 덴마크 유기농업연구소장님, 모하메드 밴 케더 튀니지 유기농업연구소장님과 ISOFAR 이 사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발표를 해주실 박세원 교수님, 최경주 국장님, 김창길 박사님, 이태근 회장님과 유기농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한국유기농업협회 강원호 회장님, 전국친환경농업협의회 박성직 회장님을 비롯한 유기농 관련단체 대표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2015 괴산 세계유기농엑스포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임각수 괴산군수님, 홍관표 괴산군의회회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지금 세계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건강식품과 유기농식품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식품시장에 불어오고 있는 이러한 변화의 바람에 지혜의 돛을 높이 올려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는 “유기농식품시장 선점”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모두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2015 괴산 세계유기농엑스포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통해 환경보전과 함께 우리나라 농업의 질적 성장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6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여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국제협력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2015 괴산 세계유기농엑스포는 세계유기농학회(ISO FAR)가 함께 하고 있고, 세계유기농운동연맹(IFOAM)도 함께할 참여할 예정입니다.

국내 유기농관련 단체·기관에서도 우리나라와 세계 유기농업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저도 2015 괴산 세계유기농엑스포의 성공을 통해 우리 농업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 주고, 세계 유기농업발전을 견인하는 태양과 생명의 땅 충북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열리는 유기농업발전 국제학술대회가 2015 괴산 세계유기농엑스포의 성공을 기약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라며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9. 22. 제6회 전국무예대제전 대회사

올림픽과 쌍벽을 이루는 무술올림픽 창건

존경하는 전국의 무술인 여러분!

세계 무술의 성지 충북 충주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종합무술대회인 제6회 전국무예대제전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제전을 정성껏 준비해 주신 김귀진 대회조직위원장님과 주선동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단체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대회를 빛내주시는 김광수 도의회의장님, 이종배 충주시장님, 김동환, 심기보, 윤성옥 도의원님, 양승모 충주시의회의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자랑스런 무술인 여러분!

먼저 지난 충주세계무술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된 것을 축하드리며

이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신 이종배 시장님과 무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무예인들은 전통무예진흥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세계무술연맹의 유네스코 자문기구 지위 획득, 무술 국제기구인 국제무예센터(IMC)의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안건 상정, 유네스코로부터 택견의 인류무형유산지정, 무술올림픽 기본계획 연구용역 시행, 세계 무예관계자 국제세미나 개최 등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무술인프라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도 우리의 최종 목표인 무술올림픽을 창건해야 합니다.

전국의 무술인들의 주도로 무술올림픽을 창건하여 올림픽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지구촌 양대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무술총연합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무술인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무예인 여러분!

충청북도는 2013년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와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그리고 2017년 제98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160만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가 세계인으로 부터 전국으로 부터 찬사와 박수를 받는 지구촌 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무술인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제6회 전국무예대제전이 전국 무술인들의 대화합의 장이 되고 세계무술 발전의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대회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9. 27. 제4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충북선수단 해단식 인사말씀

지역의 기술력이 곧 지역의 경쟁력

자랑스러운 선수단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지난 9월 4일부터 10일간 대구에서 개최된 전국 기술인들의 축제, 제 47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우리 충북선수단이 종합순위 전국 7위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낸 문제홍 선수와 은메달에 신익수, 김범준, 최철민, 이제원 선수, 동메달에 정효상, 박상대, 김진영, 송정민, 송성근, 김성수, 인효연, 안수민, 박광권 선수, 그리고 아쉽게 메달은 놓쳤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한 우리 선수단에게 뜨거운 찬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성과가 있기까지 어려운 훈련과정을 인내하고 극복해 준 송성근 단장을 비롯한 선수단과 헌신적으로 지도해 주신 지도교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참가 선수들을 격려하고 지원해 주신 이경영 청주교도소장님과 청주공고 김동명 교장선생님, 증평공고 이세희

교장선생님, 부강공고 남오정 교장선생님, 충북반도체고 이학래 교감 선생님, 선수 가족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훈련기간 중 직접 현장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해 주신 김광수 도의회 의장님, 선수단의 차질 없는 대회참가를 지원 해 주신 이상환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장님,

또한,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후배들을 이끌어 주시는 충청북도 기능 선수회 홍건표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기능인 여러분!

지역의 기술력이 곧 그 지역의 경쟁력입니다.

바이오, 태양광,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과 신성장동력이 밀집하게 될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에서는 우수한 기술인재들을 보다 많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지역에서 배출되는 우수한 기술인재들이 이러한 신성장동력 산업을 이끌어 가야합니다.

지난 25일에는 우리 충북의 오랜 숙원이던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지정 되는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오송 바이오밸리, 청주 에어로폴리스, 충주 에코폴리스 등 3개 권역 326만평에 2020년까지 2조 2,775억원을 투입

하여 친환경 BIT 융복합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인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며 3만 2천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기능인들이 요구되는 때,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때 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충북의 미래가 바로 오늘 여기 모이신 기술인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우리 도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예비 기술인들이 꿈과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역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미래 충북의 전략산업을 이끌고 갈 숙련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선수단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결과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욱 정진하여 자기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2. 10. 5. 여성 정치참여 방안 발표회(대회의실)

제2회 중국인유학생 페스티벌 대회사

제16회 노인의 날 기념식 격려사

제6회 충북우수시장박람회 격려사

제33회 흰지팡이의 날 격려사

진천산수산업단지 기공식 축사

2012 국회 농림수산물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씀

제6회 기업인의 날 기념식 인사말씀

제3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선수단 해단식 치사

제51회 충북도민체전 대회사

중원대학교 스포츠팀 창단 축사

2012. 10. 5. 제2회 중국인유학생 페스티벌 대회사

한중 교류협력의 교두보 역할 기대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지사 이시종입니다.

중국인유학생 연합회 위세걸 회장님을 비롯한 중국인 유학생과 학부 모님, 중국 자매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 관계자 여러분과 국내·외 귀빈 여러분!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행사를 빛내 주시는 장신썬 중국대사님, 언론사 및 기업체의 관계관 여러분, 공만 중국 교육부 부국장님을 비롯한 흑룡강성 등 8개성, 31개 교육기관, 문화·관광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광수 충북도의회 의장님, 이기용 교육감님과 도의원님! 김윤배 청주대 총장님, 김승택 충북대 총장님과 각 대학교 총장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학생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한·중 수교 20주년이 되는 해로 행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규모도 확대하였습니다.

6만여 중국인 유학생과 한국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 젊음을 발산하고 생각을 나누며 한·중 친교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하는 뜻으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우리 충북이 한중 교류협력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160만 도민과 14억 중국인이 함께하는 충북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학생과 내외귀빈 여러분!

6만의 중국인 유학생과 통(通)하고 한중친교(韓中親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세계문명과 문화의 중심지인 중국을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알리는 한중 한마당축제입니다.

내년에는 이 행사를 국가행사로 격상시켜 중국인과 한국인이 함께 만들어 가는 대표적인 한·중 문화교류 축제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6만 중국인 유학생 여러분께서는 충북을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준비하여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앞날에 항상 축복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개막식

2012. 10. 5. 제16회 노인의 날 기념식 격려사

99세 이상 건강하게 장수가 축복인 충북

존경하는 우리 충북의 21만 3천여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내·외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로효친을 장려하고 어르신들께 고마움을 전하는 노인의 날이 16돌을 맞이했습니다. 이 뜻 깊은 날을 160만 도민과 함께 성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성대하게 준비해 주신 전태식 연합회장님과 시군 지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광수 도의회의장님, 장선배 도의원님, 윤충 청주의료원 원장님, 그리고 오병열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청지역 본부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신 가족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노인복지에 크게 공헌하시어 상을 받으신 어르신과 유관기관 수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의학이 발달하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이제 평균수명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60대는 공적인 자리에서 은퇴를 하였으나 지나온 삶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생의 후반기를 알차게 시작해야 하는 나이 이시고,

70대, 80대는 그동안 쌓으신 경륜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한창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시는 연세이십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축복 받는 100세 장수를 누리시려면 흔히 말하는 질병, 빈곤, 고독이라는 소위 “노년의 3고(三苦)”가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찾아가는 평생복지’를 실현하고, 어르신 모두가 99세 이상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장수가 축복인 충복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복을 만들겠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검진, 치료,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께서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웃음소리가 가득한 경로당을 만들겠습니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비롯한 노인여가 복지시설도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정비하고 앞으로도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어르신들의 일자리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평생을 바쳐 일하며 쌓은 소중한 경륜을 펼치시면서 경제적인 능력과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미이용자 지원 등 노년의 경제적인 여유를 찾으실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이슬도 차다는 한로(寒露)입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를 맞아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만수무강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12. 10. 11. 제6회 충북우수시장박람회 격려사

전통시장은 사람과 산물과 문화가 모이는 서민경제의 바탕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시종입니다.

먼저 오늘 1년 중 가장 좋은 계절을 맞아 제6회 충북우수시장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16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훌륭한 박람회를 준비해 주신 충북상인연합회 최경호 회장님과 박람회 추진위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고 계시는 김광수도의회 의장님, 한범덕 청주시장님, 이종윤 청원군수님을 비롯한 도의회 김도경, 박문희 의원님, 진병호 전국상인연합회장님, 정석연 시장경영진흥원장님, 김종록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하중성 충북중소기업청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통시장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공로를 인정받아 오늘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시장 상인가족 여러분!

전통시장은 지역의 사람과 산물과 문화가 모이고 나누어지는 곳이며 서민경제의 바탕이 되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여러분께서 전통시장을 지켜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소비자의 편견과 대형마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통시장이 예전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의 전통시장은 그동안 많이 발전했습니다.

위생과 청결은 물론 편리하고 쾌적한 쇼핑환경과 함께 문화와 예술이 넘치는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공연과 한마당 잔치가 열려 시장 손님들의 흥을 돋우고, 한 쪽에서는 추억의 영화를 상영하여 쇼핑과 놀이를 함께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 상인 여러분 모두가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상생을 위한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소송에 부딪쳐 현재 유보상태에 있으나, 올해 안에 의무휴무제를 정착시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충북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부터 사흘간 열리는 우수시장 박람회를 통해 우리 전통시장의 우수성과 넉넉한 인심을 널리 알려주시고,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한 지혜도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우수시장박람회 개최를 축하드리고, 우리 전통시장과 충북상인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야마나시현 홍보부스 개막

2012. 10. 16. 제33회 흰지팡이의 날 격려사

장애인복지의 목표는 모든 장애인이 행복해지는 것

사랑하는 8천 7백여 시각장애인 가족여러분!

오늘 제33회 흰지팡이 날을 맞아 여러분과 함께 기념행사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159만 충북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시각장애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신억구 회장님과 이병국 청주시지부장님, 각 시·군지부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과 자원봉사자, 후원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성수 부회장님, 국제라이온스충북지구 지중현 총재님, 윤의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충북지사장님, 연기업 청주맹학교 교장선생님, 이재만 한국농아인협회 충북협회장님, 박상재 안마사협회 충북지부장님, 정달영 시각장애인역리학회 충북지부장님, 이영섭 광화원 원장님을 비롯한 체장애인복지회 이병국 청주시지부장님과 각 시·군지부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장애를 극복하고 어려운 이웃과 동료장애인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실천하여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시각장애인 가족여러분!

흰지팡이는 시각장애인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찾고 자립을 도와주는 도구이자, 여러분의 권익을 보장하는 전 세계적 상징표시입니다.

저는 오늘 흰지팡이 날을 맞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외와 차별, 편견이 없는 「함께하는 충북」으로 도정목표로 정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더 나아가 충북발전의 주역으로 참여하는 것이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도민 모두가 행복한 진정한 의미의 함께하는 충북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지난 정부합동 평가에서는 장애인 자립을 위해 우리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중증장애인 일감지원센터 사업이 전국 최우수로 선정되어 2억원의 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시군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일손이 필요한 지역기업체를 발굴하여, 일감을 직접 중증장애인에게 가져다주는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 평생복지 정책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각막이식 수술지원사업, 가스차단기 보급, 심부름센터와 점자도서관 운영 등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도 시각장애인 여러분들이 보다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시각장애인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날입니다. 당당한 충북의 주인이 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행사를 주관하신 신억구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2년도 제33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

일 시 : 2012년 10월
장 소 : 충청북도 공인사
주 관 : (사)충북시각장애
후 원 : 충청북도



▲ 제33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행사

2012. 10. 17. 진천 산수산업단지 기공식 축사

진천은 젊은 충복을 이끌어 갈 중부권의 거점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중부권의 산업지도를 바꾸게 될 산수산업단지 기공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 기공식이 있기까지 애쓰신 유영훈 군수님, 염정환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계룡건설 이인구 회장님과 진천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공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경대수 국회의원님과 도의회 김종필, 이수완 도의원님, 장병학 교육의원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산수산업단지는 인근 신척산업단지와 함께 진천군의 산업경제를 이끄는 양대 축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4천 8백여 명의 고용효과와 8천 2백여 명의 인구유발 효과는 물론 원부자재 구입, 단지조성과 공장건설에 따른 고용효과 등으로 진천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공업용수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에 1천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산수와 신척 두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으며, 광혜원의 국가대표종합훈련원과 진천.음성 혁신도시가 순조롭게 건설되고 아울러 국가기상정보의 메카가 될 국가기상과학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어 진천은 그 어느 때 보다 좋은 지역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진천은 중부고속도로와 동서고속도로가 관통하면서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전국 최고의 접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진천군은 역동적이고 젊은 충북을 이끌어 갈 중부권의 거점입니다.

그리고 산수산업단지는 진천군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것입니다.

신척에 이어 산수산업단지가 완공되면 진천은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건설하는 또 하나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우리 도와 진천군에서는 이미 산수산업단지에 국내외 유수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조건과 우수한 입지조건으로 벌써부터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산수산업단지는 반드시 성공할거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159만 도민과 함께 오늘 기공식을 축하드리며, 진천군민과 내외 귀빈 여러분 모두의 발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10. 22. 2012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씀

충북이 국가발전의 핵심 역할 할 수 있도록 협조부탁

존경하는 최규성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사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도정을 살피시고 지도해 주시기 위해 우
리 도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159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생명산업인 농림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충북의 주요 현안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국가 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
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충북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내륙도입니다.

동서·남북으로 관통하는 7개의 고속도로와 4개의 철도망, 청주국제공항과 KTX 오송역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전국 어디서나 2시간내 접근이 가능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최근에는 BT·IT·GT·HT가 융복합 된 BIGH-T 미래 핵심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북은 민선5기 들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의 가치를 내걸고 159만 도민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역발전의 호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KTX 오송역 개통,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 오송 입주,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그리고 바이오밸리와 솔라밸리 조성 등으로 충북이 새로운 기회와 희망의 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각종 통계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RDP 증가율 전국 2위, 산업단지 수출 증가율 전국 2위,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전국 3위 등 충북의 각종 경제지표가 전국 상위권에 오르는 등 충북의 앞날에 찬란한 서광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와 1만 2천여 충북의 공직자 모두는 159만 도민과 함께 이러한 지역발전의 기회를 살려 충북이 국가발전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바이오밸리 조성으로 대한민국의 생명산업을 이끌어 가는 생명의 땅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충북 오송은 국가 보건의료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지역으로, 식약청 등 6대 국책기관이 본격 운영 중에 있으며, 글로벌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첨단의료복합 단지가 조성되어 내년 하반기부터 그 위용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충북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과 함께 의약바이오 중심의 오송과 제천 한방바이오, 옥천 의료기기, 괴산의 식품바이오투를 연결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바이오클러스터를 건설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갈 것입니다.

둘째, 아시아 최고 수준의 솔라밸리 조성을 통한 태양의 땅 건설입니다.

충북은 현대중공업 등 60여개의 태양광 관련 기업이 집적되어 있으며 전국 태양전지 셀·모듈 생산량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양전지 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태양광테마 도시와 특화산업단지 조성 등 연관산업의 집적화를 통해 '해품도 충북'의 이미지 확산과 함께 아시아 최고 수준의 태양광산업 메카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지역·계층·산업간 균형발전을 통해 도민 모두가 고루 잘사는 함께하는 충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충북은 전국 최초로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제를 운영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가교가 될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비롯하여 전국의 모든 길이 충북으로 통하는 실크로드 건설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보은·옥천·영동 등 남부3군과 괴산·증평·제천·단양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받아 본격 개발하고, 충주·제천·단양에는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과 중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도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의 소득경쟁력을 높이고 생명의 공간을 채워주는 농촌의 막중한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생명농업의 중심 충북'을 적극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전국 제1의 유기농 특화도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2015 세계유기농엑스포 성공 개최, 전국 최초의 유기농 특구 조성, 친환경 유기농 생산단지 확대조성을 통해 국가 유기농산업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우수 농업인 육성과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과 여성농업인, 귀농·귀촌인을 지원하고, 농촌 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과 전원마을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체험마을 운영 내실화를 통해 도농교류 기반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셋째, 농업경쟁력 강화로 FTA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와 고품질 명품 브랜드 육성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농산물 수출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FTA에 대응한 농축 산업 안정화 긴급자금을 적기 지원하는 등 농업개방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제 충북은 국토의 변방, 작은 충북이 아니라 159만 도민이 뽐뽐 뽐쳐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으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충북도 공직자 모두는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지역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부족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주시고 미치지 못한 부분을 일깨워 주신다면 앞으로 충북도정이 한 단계 도약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충북도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 간부를 소개해 올리

겠습니다.

박 경 국 행정부지사입니다.
서 덕 모 정무부지사입니다.
강 성 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신 동 인 도의회 사무처장입니다.
강 호 동 행정국장입니다.
최 정 옥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이 우 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조 운 희 농정국장입니다.
김 우 종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신 병 대 균형건설국장입니다.
김 광 중 바이오밸리추진단장입니다.
곽 용 화 청주시·청원군통합추진 지원단장입니다.
김 경 용 혁신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전 병 순 소방본부장입니다.
김 진 형 정책기획관입니다.
연 영 석 충북도립대 총장입니다.
박 종 섭 자치연수원장입니다.
조 광 환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채 근 석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 정 선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고 세 웅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신 찬 인 공보관입니다.
변 혜 정 여성정책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 도정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 10. 23. 제6회 기업인의 날 기념식 인사말씀

새로운 기술개발과 불굴의 의지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

존경하는 기업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충북 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기업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기업하기 좋은 충북을 만들기 위해 마련한 제6회 기업인의 날을 16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기념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김광수 도의회의장님, 시장·군수님, 최재옥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님과 각급 경제관련 기관 단체장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모범적인 기업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하신 기업과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상을 비롯한 각종 상을 수상하시는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기업인 여러분!

충북에는 민선5기 들어 최근 역사에 기록될 경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원안사수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이어 지난 6월에는 청주·청원통합이 결정된데 이어, 9월에는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예비 지정되었고, 충북 역사상 최대의 정부예산 확보, 정부합동평가 최우수도 달성 등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부문에서 2010년에 처음으로 수출 100억달러를 돌파한데 이어 지난해는 121억불을 달성하였고, 상황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올해 목표로 한 수출목표 140억불 달성도 문안하리라 전망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과 함께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민선 5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10조 9천 5백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16만 2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신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어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북에서만 기업인들의 성공이 보장되고 불편 없이 기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충북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인 소상공인 보호와 청년창업 활성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민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 육성에 온 힘을 쏟아 붓겠습니다.

사랑하는 기업인 여러분!

지금 세계경제는 유럽발 재정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가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기업환경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밤이 깊으면 아침이 가깝고,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듯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경쟁력 있는 기업이 살아 남는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차별화로 경쟁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상하신 기업처럼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술개발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불굴의 의지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오늘 제6회 기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기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회 기업인의 날’을 거듭 축하드립니다.

기업인 여러분의 손으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복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10. 23. 제3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선수단 해단식 치사

서울·인천과 금메달 3개 차이로 도세로 보면 사실상 총복이 우승

자랑스러운 493명의 선수단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목표를 뛰어넘어 종합 4위라는 엄청난 성적을 올리고 금의환향하신 선수단 여러분을 160만 도민 모두의 마음을 모아 뜨겁게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번 성적은 작년 성적 6위보다 2단계 뛰어 오른 것이고 금메달 71개로 2·3위를 차지한 서울·인천보다 금메달이 불과 3개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도세나 인구수에 비교한다면 여러분들은 사실상 비수도권 1위의 성적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굳은 의지와 투혼을 보여 주신 선수 여러분은 물론 뒷바라지에 애쓰신 가족, 지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회기간 동안 선수단을 격려해 주시고 오늘 뜻깊은 자리를 함께해주신 김광수 도의회 의장님, 이기용 교육감님, 김희수 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님, 그리고 경기단체장님, 특수학교 교장선생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 전국 장애인체전 충북선수단 해단식

사랑하는 선수단 여러분!

이번 대회에서 세계신기록 1개(수영 조원상), 한국신기록 33개 등 총 44개의 연이은 신기록 소식은 도민을 기쁘게 하였고 충청북도의 위상을 한껏 드높였습니다.

특히 수영의 김경현·임우근 선수는 5관왕이라는 금자탑을 쌓았고 3관왕 10명, 2관왕 7명이 탄생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도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김재범·김명희父子선수는 사이클에서 동반 금메달을 획득하였

으며, 승리를 놓고 아버지와 아들 간에 양보 없는 한판 승부를 벌이는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들의 승리는 우리 도민들의 자랑으로 영원히 기억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수단 여러분!

앞으로도 멋진 모습과 함께 많은 감동을 선사해 주시고, 당당한 충북 선수단의 일원으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더욱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단 여러분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더 큰 발전과 힘찬 전진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10. 25. 제51회 충청도민체육대회

160만 도민의 역량이 하나로 결집되는 대회

존경하는 160만 충청도민 여러분!
지역의 명예를 걸고 참가하신 선수와 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제51회 충청도민체육대회가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주에서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중심고을 도약하는 충북의 힘'이라는 슬로건 아래 역대 최고의 대회를 준비해 주시고, 선수단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이종배 충주시장님을 비롯한 22만 충주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선수 여러분!

최근 충북체육에 좋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런던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에서 우리 충북선수들은 금메달 5개 등 모두 10개의 메달을 따내면서 충북체육의 저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특히 장애인올림픽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금메달 9개 중 절반인 금메달 4개를 따내 전 세계에 충북체육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이어 개최된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우리 충북선수단은 경기, 서울, 인천에 이어 종합성적 4위에 올랐고, 전국체전에서도 작년보다 한 단계 더 상승한 종합순위 11위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충북 체육의 이러한 발전은 밤낮없이 구슬땀을 흘리며 기량연마와 기록단축에 땀 흘린 선수 여러분과 뒷바라지에 헌신하신 체육지도자 여러분이 계시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선수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체육의 미래이고 충북의 미래입니다. 충북체육과 충북의 희망이 여러분의 두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자랑스런 충북 선수단 여러분!

경기에서는 전력을 다해 당당히 겨루시되 경기가 끝나면 격려와 축하로 우정을 나누어 제51회 도민체육대회가 160만 도민의 역량이 하나로 결집되는 대회가 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증원문화의 고장 충주는 최근 체육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민체육대회에 이어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그리고 2017 전국체육대회 유치 등으로 새로운 스포츠 메카로 충주시가 힘차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충주 발전에 커다란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체육인 여러분! 그리고 충주시민 여러분!

저는 이번 체전이 충북도민 모두가 함께하여 가장 빛나는 역대 최고의 성공체전이 되고, '함께하는 충북' 실현의 원동력이 될 거라 굳게 믿습니다.

그동안 충북체육 발전에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민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해 대회를 준비해 주신 체육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리며 대회를 마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12. 10. 30. 중원대학교 스포츠단 창단 축하

대학팀과 실업팀 창단에 기폭제가 되길 기대

친애하는 중원대학교 스포츠 선수단 여러분! 그리고 충청북도 체육인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

먼저 오늘 중원대학교 스포츠단을 창단을 160만 충북 도민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중원대학교 스포츠단을 만들어 주신 홍기형 중원대학교 총장님과 재단임원 및 학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포츠단 창단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이기용 교육감님, 임각수 괴산군수님, 이상현 육군학생군사학교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중부권 최고의 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는 중원대학교가 7개 종목 114명의 선수들로 스포츠단을 창단한 것은 충북 체육사에 가히 형명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내 대학 체육팀은 현재 9개 대학 27팀으로 타 시도에 비해 너무도 열악하여 우리지역의 고등부의 우수한 엘리트 선수들이



▲ 중원대학교 스포츠단 창단식

타 시·도로 유출되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7개팀이 더 늘어나 34개 팀이 되면서 갑자기 부자가 된 느낌입니다.

이번 중원대학교 스포츠단 창단을 계기로 충북 체육계에 큰 힘이 되었고 나아가 도내 다른 대학팀과 실업팀 창단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이처럼 충북 체육사에 혁명적 사건을 만들어 주신 중원대학교 홍기형 총장님께 감사드리며 114명의 스포츠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선수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은 원대한 꿈을 갖고 부단히 노력하여 최고의 선수로 성장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원대학교의 명예를 세계만방에 떨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힘찬 전진을 시작하는 중원대학교 수영팀의 노민상 감독님을 비롯한 7개 종목의 모든 선수들은 뜨거운 각오와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기량 연마에 최선을 다하여 중원대학교는 물론 160만 도민의 명예도 하늘 높이 떨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창단한 중원대학교 스포츠단의 무궁한 발전과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축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